

# 전남도 유튜브 '소셜아이어워드' 대상

### 도민 혜택 '1분컷'·돈 되는 '짤라남도' 등 재미있는 콘텐츠 호평

전남도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 등을 재미있는 콘텐츠로 제작해 소통을 강화한 결과 '소셜아이어워드 2023'에서 광역자치단체 유튜브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소셜아이어워드'는 40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시상식이다.

전남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디자인,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5개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최근 유튜브 채널의 대대적 개편을 통

해 구독자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알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남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남도 공식 유튜브는 도정 홍보라는 딱딱한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구성 방식과 지역 1인 방송 진행자(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해 재미있는 콘텐츠로 도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도민에게 혜택이 되는 정보를 짧고 쉽게 전달하는 '1분컷', 도정 주요 행사와 이슈를 제공하는 '도민 공감 쇼츠(Shorts)', 도내 귀농산어촌과 창업에 성공한 청년의 돈 되는 전남도 '짤라남도' 등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연예인이 출연해 소개한 '신세계 여행사', 장재인 등 지역 음악가가 참여한 '눈호강 귀호강', 도내 창작자가 직접 만든 홍보 콘텐츠 '옴뜰전남 크리에이터' 등이 인기를 끌었다.

전남도는 매년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도민, 유튜브 구독자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현재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는 4만8000여명을 보이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대변인은 "앞으로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감동과 재미도 선사하겠다"며 "유튜브 채널이 차별화된 전국민 소통 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바이오진흥원,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

### 남부권 바이오헬스 거점 도약 다짐

(재)전남바이오진흥원이 최근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학제적 연구역량 강화와 대외인지도 제고,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16개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스마트파크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했다.

<사진>

지난 2012년 나주 동수농공단지 식품산업연구센터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해 온 (재)전남바이오진흥원 본원 이전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역할에 맞게 도약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 추진됐

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남부 바이오헬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남의 블루 바이오를 상징하는 기관 이미지(CI)도 개정하고, 앞으로 전남 바이오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홍보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은 "전남 바이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진흥원의 중추적 역할 강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본원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바이오 전담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남부지역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고교생-대학생 멘토링으로 꿈·잠재력 일깨우다

### 여수·순천 일원서 3일간

### 진로·진학 도움 주는 만남의 장

전남도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지난달 28일까지 3일간 여수·순천 일원에서 고등학생의 꿈과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서울 소재 남도대학속의 대학생 선배가 함께하는 대학 선배 멘토링 캠프를 운영했다.

<사진>

캠프는 전남의 역점 시책인 '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고교생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도권으로 진학한 대학생 선배들과 상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멘토-멘티 무엇이든 물어보살!', '포스코 탐방', '마인드 피트니스 퀴즈 대회', '챗 지피티(Chat GPT)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멘토링 캠프



프가 학생들의 꿈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2019년부터 시작한 '새천년 인재육

성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 8월 한 달간 추가 신청 접수

전남도가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 추가 신청을 8월 한 달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8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거주한 1995~2004년 출생 청년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이미 받았거나 지급 예정자는 제외된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동일하며, 거주 기준일을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해 상반기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농협카드 누리집(군 거주자), 광주은행 누리집(시 거주자)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문화복지카드는 10월 이후 순차 발급 예정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녹색에너지센터 대만 해상풍력 벤치마킹 세미나

### 조립 설비·운전·보수 기술 공유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대만 해상풍력 벤치마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소속 연구원, 전남도 및 신안군 해상풍력 담당자,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체 등 해상풍력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해상풍력 선진지인 대만 타이중항의 해상풍력 발전기 조립 설비의 운전·유지·보수 등에 대해 공유하고, 신안 8.2GW 고정식 해상풍력 및 3.6GW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기운 풍력해양연구실장은 두산중공업에서 건설한 30MW 탐라 해상풍력 건설 공사 총괄 책임 당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탐라

해상풍력 시공사례(제주), 국내의 추진 사례(탐라, 서남해, 대만), 대만 타이중항만 개요 및 허부구조물 제작(타이페이항), 우수 사례(타이중항) 등을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신안군은 현재 신안 8.2GW 고정식 해상풍력 및 3.6GW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세계 최대 풍력발전기 제조기업인 베스타스 공장 유치 및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등에 힘쓰고 있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국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해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발전 및 도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농업박물관 풍성한 여름방학 체험행사

### 붕송아물들이기·전래동요교실 등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붕송아 물들이기와 드론교실, 어린이 전래동요교실 등 다양하고 알찬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붕송아물들이기 체험행사는 8월 1일부터 붕송아꽃이 질 때까지 운영하며, 박물관 야외 꽃밭에서 있을 때 박물관 측이 재료를 준비한다. 손톱을 붕송아로 빨강게 물들이면 악귀를 쫓고, 첫눈이 올 때까지 빨간 손톱을 유지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민간신앙의 의미가 있다.

드론교실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드론의 역사와 개념 등 이론교육은 물론 장애물 통과, 드론 닥트 등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실습교육까지 진행한다.

어린이 전래동요교실은 올해 새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8월 16일부터 3일간 운영하며, 잊는 전래동요의 기초 발성부터 율동까지 배울 수 있다. 임영호 농업박물관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농업박물관에서 즐겁게 놀고 배우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험행사는 모두 무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섬 주민 9월 한달간 택배비 지원

### 육지보다 높은 운임 일부

전남도가 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간 육지보다 높은 택배운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섬 주민의 비싼 택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해 대응한 결과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인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국비 14억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은 그동안 택배서비스이

용 시 육지와 비교해 높은 배송비를 지불한 섬 주민에게 추가 배송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목포, 여수,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 178개 섬 약 4만384명이다. 지원금은 100% 국비로 시·군별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을 정해 지원한다.

대상자가 이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이용한 택배서비스에서 추가 배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